천재교과서·천재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서 189종 290책 최다 합격

김재성 기자 | 승인 2025.09.30 15:18

천재교과서·천재교육은 교육부의 검정 심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과목 교과서 총 189종 290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출판사 가운데 최다 합격 수치로, 현장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수치는 2025년도 심사에서 새롭게 합격한 초·중·고 교과서 34종 70책을 포함한 누적 결과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중학교 2학년 국어·영어·수학·과학, 고등학교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에 이어 9월 30일(화)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수학·사회·과학·영어·음악 과목 등 9종 40책이 추가로 합격해 성과를 더했다. 특히 초등은 기존 미술·체육·실과·사회과 부도 교과서와 함께 주요 교과까지 포함되며 학습 전반을 포괄하게 됐다.

천재교과서·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자기주도 학습, 창의융합, 프로젝트 학습에 최적화된 체계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교사용 지도서·전자책등/전자저작물 등 다양한 교수지원 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사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발 단계에서는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제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과 방식을 구현했으며, 교과서 속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추가 자료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0여 년간 축적한 빅데이터와 AI 분석 도구를 활용해 텍스트 분량, 서체 크기, 여백 비율, 문장 구조 등을 검토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학습 효과를 높이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천재교과서·천재교육의 대표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천재 T셀파(티셀파)'는 교사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 잡고 있다. T셀파는 2천여 명의 콘텐츠 전문 현장 교사가 직접 제작한 30만 건 이상의 수업 자료와 18만 문항의 검증된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AI 평가·분석 서비스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로 수업의 질과 효율을 높인다.

천재교과서는·천재교육은 이번 교과서 합격을 기념해 '천재 교과서 영상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14일(화)까지 'AI 활용 천재 교과서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천재교과서 박정과 대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디지털 세대의 학습 특성을 고려해 쉽고 재미있으며 학습 부담이 적은 교과서를 개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인 천재 T셀파를 통해 과목별 수업 자료와 디지털 수업 도구를 지속 확대해 현장의 수업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저작권자 © E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hosunMedis 조선에듀

교육계 소식

천재교육-대만 롱텅출판사, AIDT 전략·에듀테크 협력 논의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입력 2025.06.13 09:57

가 가

대만 롱텅출판사 관계자들이 천재교육 디지털 교수학습 체계와 콘텐츠 개발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천재교육 제공.

천재교육이 지난 12일, 서울 가산동 본사 미래관에서 대만 롱텅출판사(Longteng Education) 관계자들과 에듀테크 및 AI디지털교과서 전략에 대한 심층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롱텅출판사는 대만 내 대표적인 교육출판사로, 천재교육의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롱텅출판사 측이 천재교육의 AI 디지털교과서(AIDT) 전략과 서책 교과서 편집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양사 간 협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재교육은 AIDT와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IT교육센터, AI센터, 에듀테크센터 등 전문 조직을 설립해 기반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외부 협력 생태계 조성에 지속 투자해왔다. 또한 국정·검정교과서 발행과 밀크T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AIDT 개발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AIDT 체험존, 교과서 전시 공간, 프레젠테이션 구역 등으로 구성된 현장을 둘러보며 천재교육의 디지털 교수학습 체계와 콘텐츠 개발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시연, 에듀테크 콘텐츠 전시, 편집 및 제작 프로세스 설명 등이 포함됐다.

천재교육은 이번 협의에서 에듀테크 솔루션 수출과 관련된 공공·민간 부문 제안 방식과 함께 각국 교육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천재교육은 대부분의 AIDT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외부 파트너 선정 시 교육 콘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준으로 협업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과의 공동 개발이나 프레임워크 공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천재교육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해외에 소개하고, 글로벌 에듀테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AIDT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바탕으로 세계 교육 시장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재교육, 우즈벡과 AI 교육 파트너십 강화 "협력 모색 기회"

김보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 | 입력 2025.05.12 10:39 | 댓글 0

>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기술부, 천재교육 방문...디지털 교육 투자 논의
> AIDT 시연으로 공교육 디지털 혁신 가능성 제시...우즈베키스탄 '호평'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기술부 관계자들이 천재교육을 방문해 AI인재 양성에 협의를 나눴다. [사진=천재교육]

천재교육이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기술부 차관을 비롯해 디지털 교육 센터 소장 및 관계자들이 방문해 교육 협력 사업 및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우즈베키스탄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지난 8일 열린 행사는 천재교육과 관계사 소개, AIDT(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 플랫폼) 시연, 향후 AIDT를 구현해낼 수 있는 AI직업 훈련 프로그램 관련 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AIDT 시연을 통해 공교육의 디지털 혁신성과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공유해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천재교육의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양국 간 교육 협력의 핵심 축으로 논의됐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재교과서 박정과 대표는 "이번 방문은 교육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천재교육의 AIDT와 AI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교육 환경에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만 교육부 관계자들이 천재교과서를 방문한 데 이어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천재교육은 에듀테크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이에 더해 천재교육은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천재교과서는 관계사 프린피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린피아는 우즈베키스탄 국정교과서를 비롯해 필리핀, 모잠비크,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 교과서 및 교육용 인쇄물을 수출하며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천재교육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콘텐츠 수출을 넘어 교육기술 기반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늘경제 김보라 기자

천재교과서 관계사 프린피아, 국내외 인쇄 출판 시장 선도...국정교과서 제작 역량으로 해외 수출 성과까지 입증

김소희 기자 / 기사작성 : 2025-03-31 14:54:45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으로 입증된 글로벌 공급 역량

천재교육-천재교과서의 관계사인 프린피아가 교과서 제작에서 쌓은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프린피아는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전문 인쇄 기업으로 연간 3억 368만 부 이상의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량 인쇄는 물론, 단 한 권의 주문도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춰 국내 교과서 제작을 넘어 해외 교육 인쇄 시장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쇄 및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프린피아는 우즈베키스탄 국정교과서를 비롯해 필리핀, 모잠비크, 스페인 등 여러 국가의 교과서를 제작해 왔으며 미국, 영국 등에도 교육용 인쇄물을 수출하고 있다. 2024년에는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는 2018년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프린피아는 공공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천재교과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가 선정한 NCS 학습 모듈 발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4431책, 170만 부 이상의 학습 모듈을 제작해 직업계고 등 교육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 인쇄를 넘어 교과서 제작 경험과 편집·디자인 역량, 품질 관리, 공급 안정성 등 교육 현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프린피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린피아는 국내외 교육 기관과 정부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맞춤형 제작, 안정적 공급, 품질 검수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공공기관 및 민간 출판사와 협업 경험이 풍부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천재교육·천재교과서를 필두로 한 천재그룹 내에서도 프린피아는 출판, 인쇄, 물류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의 교육 현장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공급하는 등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린피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교과서 제작·공급 영역뿐 아니라 이러닝·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종합 교육 전문 콘텐츠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auto@thedrive.co.kr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